

documenta-Stadt  
franzheim

exhibition to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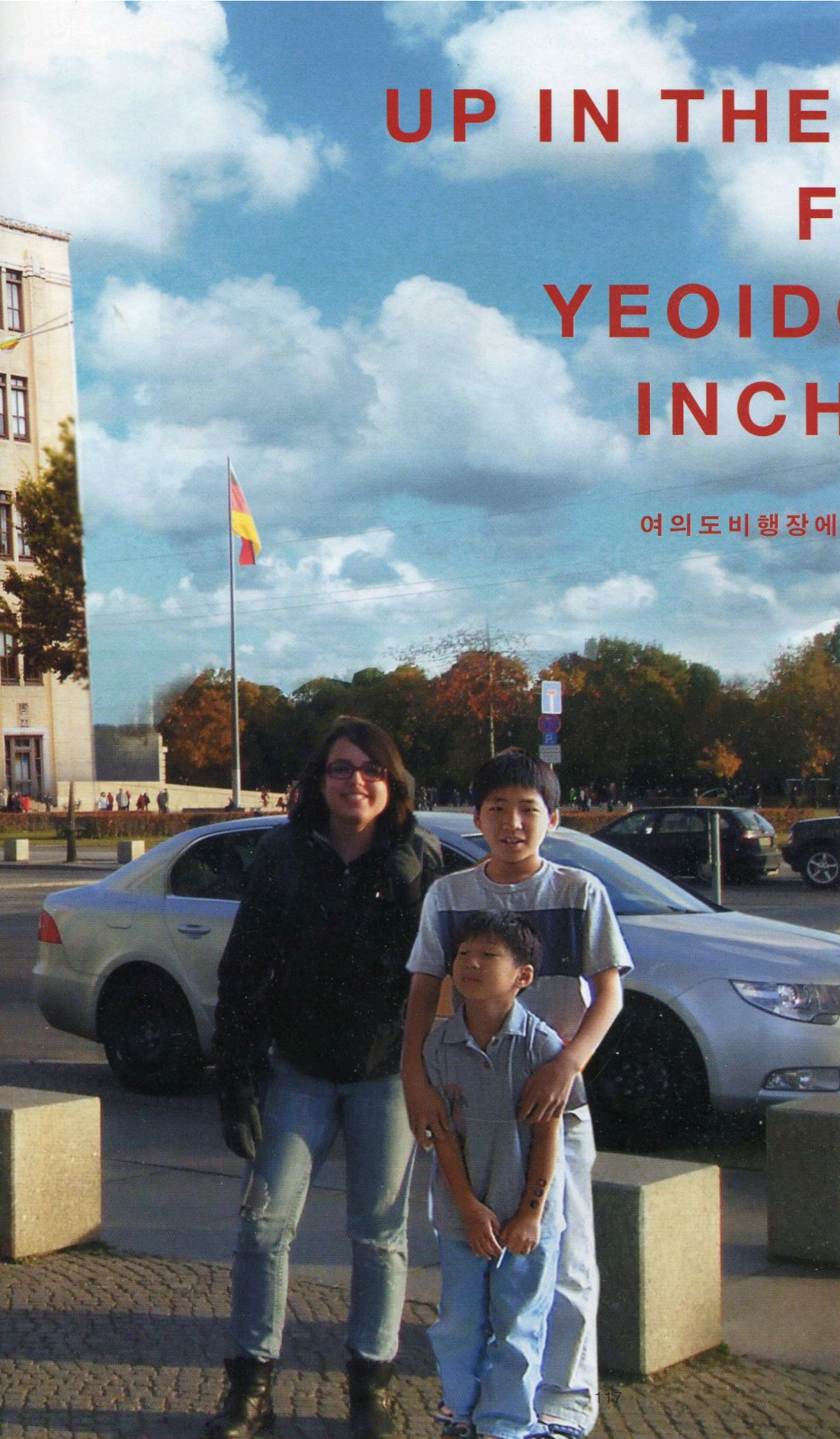
# 여행, 소비문화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자화상

일민미술관에서 2011 동아미술제 전시기획 공모 당선작사인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2011.12.29~1.29)가 열렸다. 민간 항공사의 출발점인 여의도비행장에서 오늘날 인천공항으로 발전하기까지 한국현대사와 흐름을 함께한 해외여행의 궤적을 담은 전시다. 파월 장병,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건설현장 산업역군,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의 관광객과 유학생 등 65명의 개인사가 담긴 손때 묻은 물건들이 작가들의 작품과 한데 어우러져 눈길을 끌었다.



# UP IN THE AIR, FROM YEODO TO INCHEON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 여행자의 개인적 취향

위 · 고진영 <미술관으로 간 수화물> 영상 2011  
여행객들의 물건이 소유자의 집에서 미술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아래 · 박민숙 <쇼핑> 설치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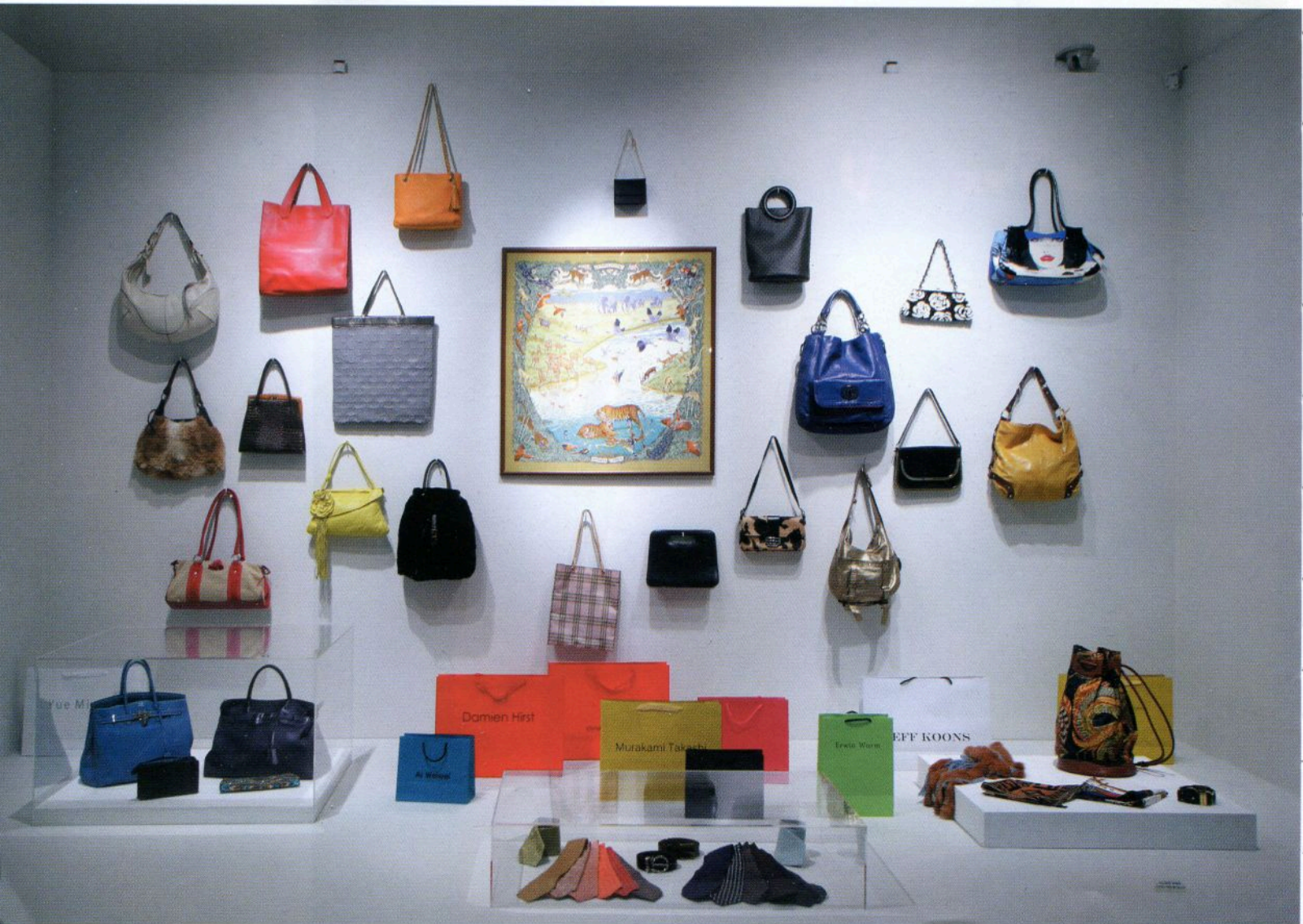
해의 유명 작가들의 이름을 인쇄한 쇼핑백들과  
실제 명품 쇼핑백들을 함께 설치하여 작가들의  
이름은 브랜드 이름처럼, 명품 쇼핑백들은 작품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상품과 작품, 일상과 예술 그리고  
물질과 정신의 경계 혹은 가치의 우위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의 모순을 환기시킨다.

### 앞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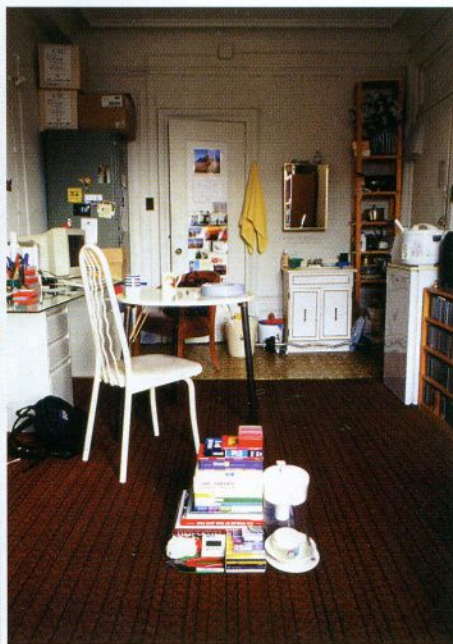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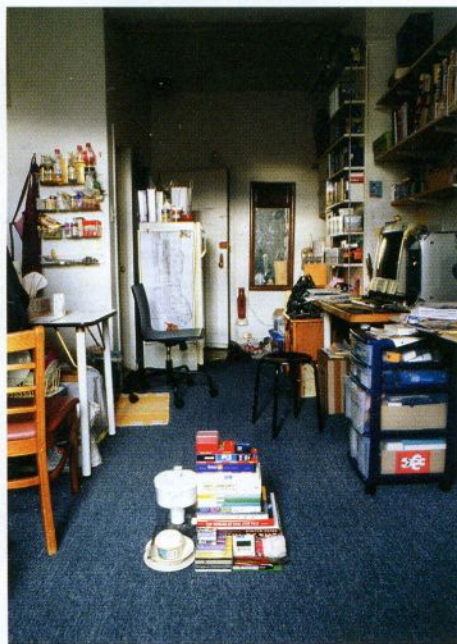
박재영 <다운라이트 투어 - 프란츠하임>

가변설치 2011

관객들이 프란츠하임이라는 독일스러운 풍경을  
배경으로 해외여행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했다. 실제로 배경의 건물은  
일민미술관이다.







위 ·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전시광경  
 독일에서 사온 물건과 그릇  
 세트, 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증  
 등 이항미 가족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아래 · 오인환 〈우정의 물건〉  
 2000  
 뉴욕 친구의 집을 방문해  
 그 친구와 자신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찾아내고,  
 그 물건들을 두 사람의 집에  
 병치시켰다. 물건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





## 이동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기억

왼쪽 · 노승복 <여의도비행장에서 김포공항까지> 영상 스틸 컷 2011 월남파병, 미국유학, 중동파견 근무 등 한국 해외이주역사의 산증인인 아버지 노병상의 삶을 남아있는 사진을 통해서 추적하는 영상작업이다.

오른쪽 · 임흥순 <전쟁구술사진 연작 - 배고파 팔아버린 세이코 시계와 참전군인이 키우는 토마토>

사진 위에 칼로 드로잉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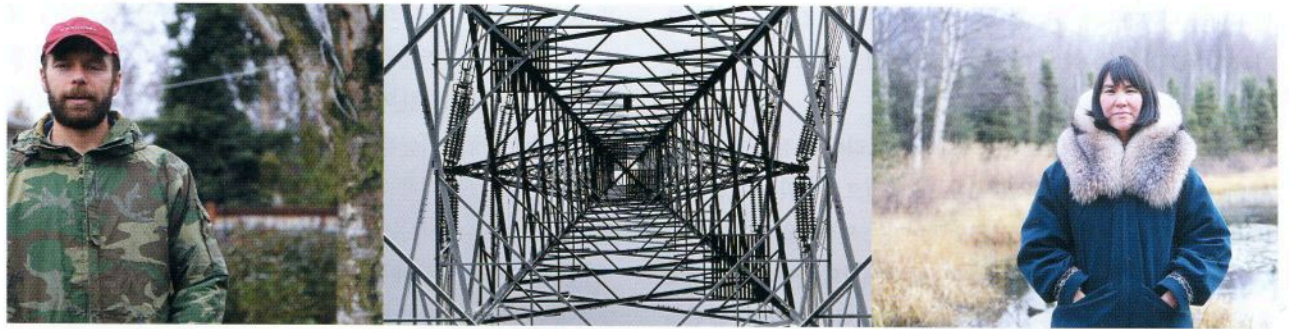
웅산전쟁기념관의 하늘을 찍은 사진과 파월장병이 키우는 토마토를 찍은

사진 위에 월남전과 관련된 물건을 칼로 드로잉한 것이다.

아래 ·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전시광경.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물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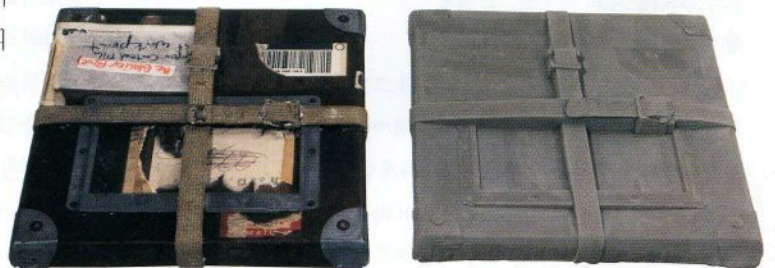
위 · 양민수 <알래스카 경유> 3채널 비디오 2011 알래스카라는 동일한 공간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즉 알래스카를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유토피아로 바라보는 미국 히피세대의 이주인들과 인생의 막장으로 인식하는 한국인 이주자들의 시선을 교차시킨다. 아래 · 김상균 <공정거래> 설치 2011 물건 대여자들에게 자신의 작품과 여행 기념품을 맞교환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물건의 주인들이 예술작품을 소장하기 위해 개인적인 기억이 담긴 물건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그 과정에 대한 기록물을 전시한다.

### 양은희 미술사

공항은 과거에 항구, 기차역이 그러했듯이 현대인의 여행과 이동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며, 중간 기착지이다. 제트기가 상용화된 1970년대를 거치면서 공항은 국가 간의 이동을 보다 빠르고 용이하게 만들면서 현대문명의 화려한 총아가 되었다. 그 화려함을 이용해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는 욕망이 촉발되기도 했는데 인천공항, 존에프케네디공항, 샤를 드골 공항 등 여러 국제공항의 설립 역사가 보여주듯이 공항은 기술과 진보를 꿈꾸는 국가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장소이다. 공항은 건축가 램 쿨하스가 언급했듯이 자신처럼 충분한 부와 지식, 여유시간을 확보한 “키네틱 엘리트(kinetic elite)”들이 현대 유목민으로서 통과하는 곳이기도 하며, 고향을 두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외국으로 직장을 찾아가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거치는 곳으로 국경을 넘어 국제적 이동에 오르는 현장이기도 하다. 최근의 공항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 흐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최첨단 장치를 선보이는 곳이자,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잠시 머무르는 동안 쇼핑, 관광, 오락,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이다. 또한 서로 다른 가치가 유연하게 공존하는 혼재된 장소이자, 로시브라이도티(Rosi Braidotti)가 말한 것처럼 바로 그 입시적 성격과 경계선의 약화 덕분에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이후의 예술가에게 특별한 창작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전시 제목에 언급된 두 공항을 한국과 그 외 지역을 잇는 연결지점이자 출발점, 그리고 귀환점으로 삼아 이곳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과 기념품을 통해 시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여의도비행장(1929~1958)>은 한국 최초의 공항으로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어 1958년까지 민간공항으로도 사용되었고, 1971년까지 공군기지로 사용되다 서울공항으

로 이전하면서 완전히 폐쇄된 역사를 가진 기억 속의 공간이며, 인천공항은 2001년에 설립된 국제공항으로 연간 3000만 명이 넘는 여객이 사용하는 허브형 공항이다. 외국으로 나갈 기회가 주어졌고 실제 경험을 한 한국인과 일부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여행, 이주, 이동, 귀향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시각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지난 50여 년 동안 현대 한국인이 겪은 역사의 굴절, 소비사회의 가치 수용, 성공과 성취의 미화, 문화충격, 정체성 찾기를 잘 담아내고 있다. 이 전시에는 65명의 일반인, 23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이 전시의 기획자들(이혜원, 고동연)도 자신들의 삶의 일부로 여행, 이주, 유학이라는 형식을 통해 여과시킨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사실 전시를 보러 오는 관객 역시 그러한 경험을 한 두 번씩 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 전시는 그러한 이동과 여행의 경험에서 얻은 기념품과 생활도구, 예술작품을 결합시켜 혼잡스러우면서도, 현대판 ‘호기심 상자’와 같은 독특한 디스플레이 방식(오인환 작가가 진행했다)을 통해 한국 현대시각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획자와 참여자들의 문화해석, 일상품과 예술작품, 컬렉션과 전시, 그 접경에서 정체성 찾기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획자가 설명한 것처럼 “한국인이 다른 문화와 조우하는 방식이나 이를 통하여 스스로의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조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여행객의 삶의 흔적을 통해 우리의 집은 무슨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나를 찾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다.” 글로리아 안잘두아(Gloria Anzaldua)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다소 낭만적으로 들리는 이 말은 집을 떠나는 것이 곧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작임을 의미한다. 정주(定住)와 이주 사이에서 집(home)은 넓은 세상의 한켠에 있는 나만을 위한 곳이자 개인적 꿈을 꿀 수 있는 장소이며, 나의 상당부분을 만들어준 곳이다. 떠나는 것은 세상에 나가는 것, 낯선 곳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낯선 장소에서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모두 집을 떠나 새로운 삶과 새로운 나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떠나야 했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100여 년 전 하와이 수수농장으로 떠났던 최초의 이주노동자들처럼, 1960년대 이후 광부, 간호사로 돈을 벌기 위해 독일로 떠났던 사람들, 1970년대 외국 건설현장에 파견됐던 젊은이들처럼 노동과 의무를 수행해야 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후자에 속하리라. 당시 노동이 아니라 여가와 자기계발을 위한 외국여행이 가능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한 중산층이나 상류층이었다. 한 지인은 1970년대 초 외국에서 단기유학을 마치고 들어오자 부모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온 친구와 친지에게 ‘000 귀국환영’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수건을 돌리기도 했다고 하니, 그만큼 당시 외국여행과 귀향은 중산층 사람들에게 드문 경험이었다.

이 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쪽에서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 한기성을 비롯한 8인의 물건들, 독일파견 간호사, 중동의 건설현장에서 돌아온 근로자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전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항공사 기장, 유학생 등 중산층 이상의 한국인이 여행, 유학, 출장 등의 결과로 모은 물건들을 전시한다. 전자에 전시된 물건들을 보면 불가피하게 외화를 확보해야 했던 국가의 요구에 부응해 불가피하게 전쟁에 참여하거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들이 이국문화 속에서 고가의 그릇, 양탄자, 카메라, 시계처럼 특이한 것, 기술이 뛰어난 제품 등을 주로 수집했음을 알 수 있다. 후자에 전시된 물건은 고가의 명품 가방과 구두에서부터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 부엌용 도구, 조리용 재료, 향수병, 책, 버룩시장에서 구입한 빈티지 물건, 장식용 여행 기념품까지 다양하다.

문명의 역사는 인간의 지리적 이동과 그 인간이 수용하는 문화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인간의 여행/이동은 스스로에게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습득한 물건들은 생존을 위한 유용한 도구를 넘어 타자와의 관계를 설립하고, 문화에 참여한다는 만족감을 주는 자아 확장의 매개체로 기능한다. 양주

병에서부터 트랜지스터 라디오까지, 관광기념품에서 선풍기까지, 전 시장을 가득 메운 물건들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만한 물건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실현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은 자신의 삶에 유용한 일상적 물건이자, 집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친지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소재로 사용되었을 법한 물건들이다. 그 개개인의 흔적을 모은 이 전시는 현대 한국문화가 고립된 적이 없으며, 변화, 자유를 담보로 하며, 부와 풍요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수용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여행자가 가지고 온 기념품이라는 차원을 넘어(때론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때론 낭만적 감상에 젖은) 그들의 자아를 구현한 자화상이자, 이주와 여행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의 단면을 드러낸다. 다행히도 그 단면 속에 드러나는 이야기는 책임과 회생이라는 아픈 이야기에서 자유와 유희라는 덜 아픈 이야기로 나아간다.

전시된 물건들은 이국적인, 또는 탐나는 외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그들의 소비문화까지 수용한 역사를 집약하면서 지난 50여 년 동안 ‘잘 살아 보세~’라는 노래를 부르며 성공을 향한 욕망 속에 속도와 효율을 강조했던 우리의 일상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결국 그 성공의 척도가 돼버린 물질적 소유물은 소비와 소유의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과 취향, 문화와 계급까지 결정하게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한다. 어떤 소비의 기술을 습득하는가는 곧 어떤 계급의 문화를 추종하는가와 등가(等價)이다. 이제 물질을 통한 정체성의 구현은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자글로벌화된 세상의 한가운데서 소비문화를 통한 존재 확인은 필연적이다. 그 소비구조 속에서 이국적인, 또는 글로벌한 취향조차 소비를 위한 또 다른 계급적 취향에 불과하다.

그래서인지 이 어마어마한 일상용품, 장식용품의 향연 사이에 긴 작가 23명의 작품은 이 전시의 주체가 아니라 마치 그 시각적 기록의 현장을 지원하는 보조자처럼 보인다. 그들의 드로잉, 영상, 사진, 설치작업은 조용히 그 향연을 음미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전시된 물건들 속에 묻힌다. 어쩌면 소비문화 속에서 예술의 위치는 허무하리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지도 모른다. 양자가 공존할 때, 예술에서 강조되는 창의성과 상상력은 소비문화에서도 중요한 덕목이며, 예술은 문화생산물로서 결국 소비품과 같은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 운명을 강요당한다. 작가의 의도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소비구조 속에서 인간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 예술은 소비재와 계속 비교당하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알면서도 이 전시 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작가들, 심지어 작품의 설치계획과 실행에 참여한 작가들은 적어도 예술의 우위, 예술가의 우위라는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번기라는 소비재를 전시장으로 들여왔던 뒤상을 닮고자 했을까? 그들의 쿨함이 존경스럽다. ●



## “모든 물건은 주인의 특별한 사연을 담고 있다”



고통연(왼쪽), 이혜원

### 전시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혜원 이 전시는 약 17년 동안 들어온 한 친구의 특이한 가족사에서 출발했다. 2층 전시의 시작점인 향미네 가족은 1960년대 베트남전에 참전한 아버지, 1970년대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된 어머니, 1980년대 중동 건설현장으로 떠난 오빠, 1990년대 미국에서 여동연수를 한 향미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다양한 나라로 단체관광을 다닌 여동생으로 구성된다. 향미가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국 경제개발의 역사가 해외여행의 역사와 일치하고, 그 역사가 한 가족 안에 압축된 것이 신기해서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생각이었다. 향미네 집 방문했는데 베트남에서 온 고장 난 선풍기, 독일에서 온 때 묻은 인형, 리비아에서 온 양탄자, 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증처럼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21세기에 그것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갑자기 매우 낯설게 느껴졌다. 이번 전시는 그 낯선 느낌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이 전시에서는 일반여행객들의 소장품과 아티스트들의 오브제 사이의 구별이 쉽지 않다. 전시에 출품되는 물건 및 작품 선정, 디스플레이 등 다방면에서 한국의 시각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눈에 띄는데.**

이혜원 사실 작품과 물건은 상당히 뚜렷하게 구별된다. 많은 아카이브 전시가 작품과 오브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작품과의 연관성 속에서 오브제를 이야기하지만 이 전시는 그렇지 않다. 물건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보아온 평범한 물건이고, 작품들 또한 외형적으로 지금까지 보아온 다른 작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전시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작품보다 물건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은 수 십 년에 걸쳐 세계 곳곳에서 온 물건들이 동일한 시공간에 놓여있음으로써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내러티브들 때문인 것 같다. 다시 말해, 지난 50년 동안 해외여행을 했던 하지 않았건, 관객의 대부분은 누군가가 가지고 온 월남치마, 꼬끼리 밥솥, 소니 카메라, 에펠탑 열쇠고리 혹은 냉장고 자석 같은 물건을 본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통연 물건을 대여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이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대여자로서도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났다. 임흥순 작가가 빌려준 베트남의 전통모자, 임상빈 작가가 대여해준 탄피로 만든 자그마한 반지 모양의 물건 등이 바로 그러한 예다. 작가들의 작업과 소장품이 함께 전시해도 될 만큼 주제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작가들은 작가와 일반인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나는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일반인으로 살아가다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필요로 순간에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에게 흥미로운 점은 일반인 대여자들의 물건에 담긴 사연에는 매우 관심 있어 하는데 작가의 물건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나 자신도 작가와 작가의 물건을 일반인이나 일반인들의 물건과는 차별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일반 대여자들의 경우 물건들이 개인별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작가들의 대여한 물건의 경우 주제별, 유형별로 묶이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다.

고통연 이번 전시는 참여하는 인원들도 많고 특히 일시적으로 대여 받은 소중한 물건들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여한 물건의 일부분만을 전시하게 되었다. 물건들이 선택되거나 혹은 참고로 분류되는 과정은 결국 물건을 통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인식하고 그 내러티브를 전달하려는 전시 기획자나 디스플레이어(오인환 작가)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개입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다. 실은 이러한 과정은 이미 물건 대여자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대여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났다. 대부분 빌려준다고 했던 물건과 실제로 빌려준 물건이 다른 경우들이 생겼다.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통하여 대여자들이 대여를 결정하는 순간에 물건에 대하여 매우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가장 인상 깊은 사연과 물건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혜원 거의 모든 물건이 주인들의 특별한 사연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종래씨와 새터민 K씨의 물건이 기억에 남는다. 낯선 문화에서 살아남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도구인 언어와 연관된 두 물건에 각인된 시간성의 강렬함 때문이다. 낱장 하나하나가 돌돌 말려서 부채처럼 펼쳐진 고씨의 영한사전은 40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그녀가 영어라는 낯선 언어와 씨름했던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해진 각종 외래어들로 가득한 K씨의 남한 말 암기수첩은 약 60년의 시간 동안 남북이 서로에게 얼마나 낯선 존재가 되었는지를 어떤 말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고통연 참전 군인들의 경우 단순한 물건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다. 이들이 월남에 가게 되는 계기나 귀국할 때 들고 오는 물건들, 그리고 이후에 삶을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서로 연관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흥중만씨는 전쟁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외래 문물과 자신의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월남에 가게 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여해준 월남어 사전, 서양 신부과 찍은 사진, 편지 등은 본인이 월남에서 언어와 문화를 배웠던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는 귀국 후 외국합작회사에 근무했고, 대학교의 영어교육원에서 근무하는 분을 배우자로 맞이했다. 이슬비 기자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전시광경

